

증권 다이제스트

키움투자콘서트
시장 전망 및 실적투자 기법
 일시 : 2019.03.12(화) 18:30 ~ 20:00
 장소 : 남석관 대표(실적투자)의 정책 제언
 장소: 여의도 키움증권2층 교육강
 키움증권

**키움증권
12일 '키움 투자콘서트'**

키움증권은 오는 12일 투자 고수의 강의와 대담형식인 '키움 투자콘서트'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키움 투자콘서트'는 금융가에서 전업투자자의 전설로 잘 알려진 남석관 대표(베스트인컴)를 초청해 '시장 전망과 실적 투자의 기법'을 주제로 향후 시장을 전망하고, 실적 투자에서 유효했던 본인의 투자 노하우를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회 2부에서는 김순영엔지니어(체널K)가 '남석관 대표와 토크콘서트'도 진행한다. 키움 투자 콘서트 참가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영웅문S 앱에서 할 수 있다.

/손업기 기자

유안타증권
수익성 높은 옵션 ELS 등 파생결합증권 3종 공모
 총 150억원 규모로 3월 12일까지 공모

**유안타증권
ELS 등 파생결합증권 3종**

유안타증권은 오는 12일까지 상품별로 각각 수익성을 높이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춘 유안타 옵션 추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3종을 총 1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옵션 ELS 제4240호'는 조건 충족 시 상환되는 수익률을 높여 수익성을 강화했다. 만기 3년, 조기 상환 주기 4개월의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니케이225(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2%(4개월), 90%(8개월), 85%(12·16·20개월), 80%(24·28·32개월) 이상일 때 연 7.50%의 수익률로 조기 상환된다.

/손업기 기자

**미래에셋대우
다이렉트 비대면 이벤트**

미래에셋대우는 7일 신규다이렉트비대면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2만원의 혜택과 2025년말까지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유관기관 제비용 제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4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최초 신규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다이렉트 계좌 개설 후 국내 주식 10만원 이상 거래 시 최대 2만원과 2025년 말까지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유관기관 제비용 제외)을 받을 수 있다. 계좌 개설 완료 시 해당 계좌로 익명업일에 1만원이 입금되고, 10만원 이상 거래 시 추가 1만원은 이벤트 종료 후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금융권, 오픈 API 플랫폼 마련되면...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상품 실시간 관리

우리은행-뱅크샐러드, MOU
 공동오픈 API 개발... 5월 출시
 기존 앱 보다 빠르고 정확해져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하나로 은행 계좌부터 금융상품까지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픈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불러올 미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KEB하나은행·KB금융지주·KB금융지주 등이 현재 오픈 API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뱅크샐러드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금융 환경 조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핀테크사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오픈 API 플랫폼 개발에 착수해 오는 5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각 금융사들이 공유할 오픈 API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될 금융서비스가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 앱 하나로 '실시간' 자산관리

기존 핀테크 업체가 사용해오던 스크래핑(고객 동의 하에 개별 금융사의 금융정보를 긁어오는 기술)과 오픈 API의 차이점은 소비자의 금융 데이터를 불러



뱅크샐러드 어플 실행 화면.

오는 '속도'에 있다.

현재 뱅크샐러드나 토스 등의 자산관리 앱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선 개별 은행 및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고객 데이터와 각각 연동을 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금융 정보가 쌓이는 시간 또한 개별 소비자가 가진 정보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뿐만 아니라 증권 계좌와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과 연결된 소비자일수록 금융 데이터의 정보량이 많아 앱 내 축적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개별 인터넷 환경과 모바일 기기의 성능에 따라 30초~3분 가량의 추가적인 정제 시간도 발생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다.

반면 오픈 API 환경에서는 각 금융사에 산재된 데이터의 실시간 취합이 가능

하다. 오픈 API를 관리하는 오픈플랫폼 센터에서 한번의 인증 절차만 거치면 개별 금융사의 데이터를 각각 연동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고, 시간에 따른 오차도 줄일 수 있는 것.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오픈 API 환경에서는 기존 앱보다도 훨씬 빠르고 정확한 금융 데이터 취합이 가능해진다"며 "금융 소비자의 자산분석과 같은 데이터 응용 사업 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 API가 구축된다면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사가 융합한 특화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생애주기와 더욱 밀접한 금융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뱅크샐러드와 MOU를 맺은 우

리은행 관계자는 "핀테크사의 기존 자산 관리 앱에 금융 상품을 단순 입점시키는 형태에서 벗어나 각 주체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공동 자산관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법적인 제한 사항이 많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같은 금융 서비스의 고도화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이터 공유로 소비자보호 개선

금융권 전반의 오픈 API 환경이 형성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정보 보안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금융 소비자의 데이터를 각 금융사 간 상호 공유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신용정보법 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핀테크 업체 또한 전자금융업자에 준하는 보안 조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핀테크 업체에서도 소비자 정보 보안을 위해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나 망 분리 환경을 구성하고 있고, 시중은행처럼 공인인증서를 통해 금융사의 고객 데이터를 연동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별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 정보를 통해 능동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끔 데이터 관리·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대우건설, V-TOL 국내 첫 도입... 정밀 공간정보 구축

(수직이착륙비행드론)

**경산지식산업단지 현장 측량
3D 모델링·지형도 제작 수행**

대우건설이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최신 무인비행 장치인 V-TOL(수직이착륙비행드론)을 경북 경산지식산업단지 현장에 도입해 측량, 3D 모델링 및 지형도 제작을 수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현장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부지조성공사로 면적 280만9418㎡, 절토량 1017만㎡, 성토량 1228만㎡의 대형 공사 현장으로 현재 토공량 관리가 공정의 주요사항이다.

V-TOL은 고정익의 장기간 비행과 회전익을 통한 수직이착륙의 장점을 겸비한 무인비행체다. 최대 108km/h의 비행속도로 1시간30분을 비행할 수 있어, 한 번에 대형 부지를 신속하게 촬영해 현



국내 최초 최신 무인비행 장치 V-TOL.

/대우건설

장 측량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 고성능 IMU(이동 물체의 속도, 방향, 중력 등을 측정하는 장치), RTK-GPS(비행체 GPS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식), PPK(PTK-GPS로 수신된 GPS정보를 후처리소프트웨어를 통해 보다 정확한 GPS값을 계산하는 방식) 방식을

적용해 기존 드론보다 정밀한 측정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게 됐다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했다.

스마트건설기술팀 백기현 팀장은 "기존에는 드론 측량이 소형 부지에만 국한되어 있어 대형 부지에 대해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측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

었다"라며 "그러나 V-TOL 및 대형 고정익 드론을 통해서 최대 100km²의 부지에 대해서도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 정보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측량하게 되면 정확한 토공량 산출로 정밀한 시공이 가능하다. 또 인력측량에 비해 50% 이상의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유인항공측량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형정보 취득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아울러 유인항공측량보다 촬영면적은 소규모지만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향후 드론활용 기술을 측량 기술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공정 관리 등 전 분야에 확대 적용해 미래 건설의 핵심 기술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금감원, 상호금융 경영공시제도 개선

상호금융조합은 앞으로 금리, 수수료 등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권별로 달랐던 공시항목을 통일해 비교하기 좋게 바뀌며, 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합별 공시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의 경영공시제도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신탁·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권별로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고, 일부 주요 경영정보는 제외되는 등 미흡했다. 또 대부분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만

공시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고, 조합 간 비교도 곤란했다.

업권별로 달랐던 공시항목은 통일된다. 각 중앙회가 업권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반영해 '통일경영공시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또 금리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투자, 싱가포르 DBS뱅크와 맞손

NH투자증권과 싱가포르 DBS뱅크는 7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본사에서 리서치 및 해외영업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DBS와의 업무협약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한국 투자자의 정보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심 지역의 경제와 산업, 기업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리서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해외영업 협력을 통해 해외기관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효과도 누리게 된다.

DBS는 1968년 설립됐으며 총자산 3330억달러에 달하는 싱가포르 최대의 은행로서 홍콩,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타이완 등 18개국에서 영업 중이다. 리서치, 기업금융, WM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 NH투자증권의 리서치 및 해외영업과의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이상목 상무는 "이번 NH투자증권과 DBS간 리서치·해외영업 협약을 통해 글로벌 리서치 역량과 해외영업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